선문화

선의 수행과 정신 또는 선사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뜻한다. 인간의 근원적인 청정한 자리 본래심을 바탕으로 전개한 예술적 소산, 즉 문학 다도 음악 미술 서예 춤 무예 등 그 장르는 다양하다.

꾸밈 없는 독창성 '특징'

선문화란 지식적 이론이나 관념적인 접근, 또는 무엇을 이루겠다는 명예욕, 성취욕으로 하는 예술이 아니라 가식과 꾸밈이 없이 일체의 형식을 초탈한 무심의 경지에서, 직관의 지혜가 작용하여 시각화하고 조형화된 작품이다. 따라서 이것에는 작가의 정신과 사상이 혼연일체가 되어 녹아 있음은 물론 파격미와 독창성이 뛰어나다. 보는 이들 역시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아름다움과 청정 탈속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선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선시와 선서화, 다도이다.

임제종 황룡파 홍정견(1045~1105)거사로부터 비롯된 강서시파가 최초의 선시 장르를 형성했다. 스승이 제자를 인가하는 표시로 주는 전법게, 깨달음의 희열을 읊은 오도송(悟道詩), 임종때 남기는 임종게, 산생활의 서정을 노래한 산거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산거시는 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즐거움, 낙도, 무소유를 노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신수와 혜능이 본격적인 개오시를 남겼으며 영가현각, 천동정각 등의 선사와 왕유, 백거이 두보 소동파 등 헤아릴수 없는 많은 시인들이 빼어난 선시를 썼다.

우리나라는 고려때 태고보우, 나옹혜근, 조선의 함허득통, 청허휴정, 소요태능, 부휴선수 스님, 경허·경봉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이 뛰어난 선시를 남겼고 선시는 하나의 큰 문학조류를 이루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중 일 3국에서 흔히 남종화라 하는 수묵화는 과감한 생략과 여백을 특징으로 한다. 남종화라는 이름은 남종禪에서 비롯됐다. 걸림없는 심오한 선의 경지, 깨달음으로 가는 구도심을 묵적(墨蹟)으로 상징화시킨 것이 선서화다. 그림에서는 세부적 묘사보다 과감한 생략, 글씨에서는 기교보다 붓 흘러가는 대로 꾸밈없는 서법 등은 보는 이들에게 파사현정(破邪顯正)과 무언의 설법까지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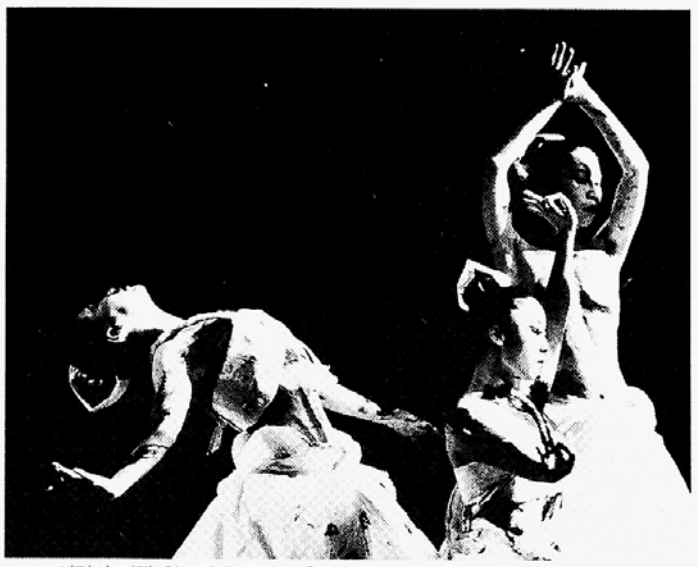
'다선일여(茶禪一如)' '선다일미(禪茶一味)'라는 말처럼 차와 선은 불가분의 관계로 불가에서의 차는 '각성'을 의미한다. 조주스님이 두 납자의 참문에 '끽다거(喫茶去·차나 마시게)'라고 한 이후 '끽다거'는 유명한 화두가 되었다. 차를 직접 마시어 차맛을 아는 것처럼 일생생활속에서 본래심을 잃지말아야 한다는 평상심에의 회귀, 또 무심하게 마시는 차 한잔에도 일생의 참학을 깨닫도록 자기자신을 늘 돌아보라는 뜻이다. 한국차생활문화원, 반야로차도문화원, 불교전통문화원, 초의선원 등 여러 곳에서 다도교육을 실시하며 다선일미의 묘법을 전수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몸짓인 춤에 선을 도입한 것이 선무(禪舞)이다. 춤의 속성상 가장 몰입하기 쉬운 몸짓 하나 하나에 행선(行禪)의 원리를 적용한 것. 생각은 화두로 비우고 입으로는 주력이나 염불, 단전호흡으로 기를 온 몸에 보내면서 손으로는 결인법을 실시하는 선무는 무궁무진한 창의성까지 발휘할 수 있고 추는 사람은 물론 보는 사람까지 하나로 몰입된다. 이선옥·강만홍 교수 등이 선무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 고요함과 움직임의 조화를 통해 건강과 호신술까지 연마하는 선무도와 선체조도 근본적으로는 깨달음을 향한 실천적 수행방편으로의 행선이다. 신라시대부터 불가에 전해내려온 선무도는 불교전통의 관법을 바탕으로 나한공과 〈역근세수경〉이 어우러진 것. 부드러운 움직임과 호흡의 조화를 체조로 응용한 선체조는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건강법으로 참여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88년 김영동씨는 창작명상음악 '禪'을 발표했다. 예불소리와 염불소리를 배경으로 피리 가야금 생황 대금 등의 국악기를 사용하여 만든 '선'은 신비스러우면서도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 각박한 세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잔잔히 감싸안아 호응을 얻고 있다. 이후 범패와 국악 등을 이용한 '명상음악'이 하나의 장르처럼 되어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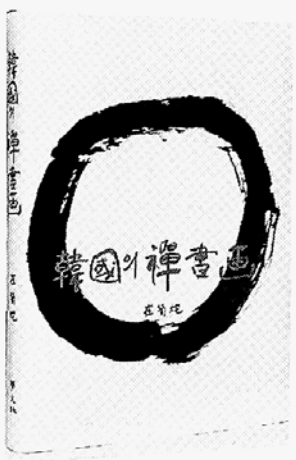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몸짓인 춤에 行禪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 선무, 사진은 이선옥 무용단의 '선무-바라밀다'

선 시 전법게·오도송·산거시등 다양
선서화 주로 수묵화…과감한 생략·여백
다 도 '禪茶一味'…화두 '끽다거' 유명
선 무 춤에 行禪의 원리 접목한 몸짓

한국 선서화 시대별 첫 집대성

최순택 교수 '한국의 선서화' 발간



최순택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가 우리나라 선사들의 선서화를 통일신라부터 고려, 조선 시대, 그리고 근 현대등 시대별로 총망라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식적인 특성을 밝힌 올칼라집 〈한국의 선서화〉(학문사 刊)를 발간했다. 그동안 게송이나 선서에 관한 책은 많이 발표되었으나 선서화를 집대성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이책이 처음이다.

〈한국의 선서화〉는 먼저 Δ선종의 수용과 전개를 시대별로 간략하게 밝히고 선서화의 개념과 종교성을 설파했다. 이어 통일신라시대의 영업부터 고려 탄연, 조선시대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 시대별로 유명화가들이 그린 선종화와 글씨에 대해 양식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경허스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근·현대 선서화는 만공·한암스님 문중, 석두선사 문중 등에서 중광스님까지의 기라성 같은 선사들의 글씨와 그림을 소개하며 걸림이 없는 내면세계와 그 심오한 경지를 고찰했다.

최순택교수는 "선서화에 내재된 선기(禪機)의 방사(放射)는 수행의 깊이와 정비례하므로 어떤 법문이나 선구보다 선사의 인간적인 수행의 오묘한 면모를 잘 알 수 있으며 널리 교화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21세기와 禪

선체험기

21세기 정신세계를 선도해 나갈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 참선과 참선 후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 참선을 생활화한 사람들의 진솔한 체험담을 들어본다.

'無'자 화두는 나로 하여금 분별을 끊게 하는 원동력

박영재 서강대교수·물리학

75년 세검정 불심원(佛心院)의 종달 이희익 노사를 만나 뵙고 '무(無)'자 화두를 받았다. 노사께서는 다만 이 '무'자를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아랫배로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내 생애에서 가장 오래 앉아 있던 날이 수련대회에 참석해 7시간 정도 좌선을 했던 때로 기억된다. 간간이 '무'자 화두를 들었으나 불과 2~3분이면 화두는 오간데 없이 망상만 들끓었고 다리가 쑤셔서 언제 죽비소리가 울려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만 간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참선수행을 한 지 4개월, 종달노사께서 '무'자 화두의 경계를 대라고 다그치셔서 "근본"이라고 둘러댔다. 엉터리였다. 노사는 머리 속에 "'무'자란 이런 것이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아랫배에 자연스럽게 힘을 주면서 '무'자를 떠올리고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스승에게 제시하라고 했다. 그렇게 점검을 받으면서 스승이 아니라고 하면 버리고 다시 '무'자를 참구했다.

이 '무'자 화두와 더불어 일년이 넘게 씨름하던 어느 날 대학교 선배로부터 한 미친사람이 어떤 스님으로부터 '나란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받아 들고 수행하다 드디어 마음이 열림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가슴 답답하던 것이 후련하게 뚫리며 '무'자 화두의 경계가 뚜렷해졌다. 그 후 이것이 수행의 밀거름이 된 동시에 나로 하여금 철저히 분별을 끊어 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과에 쫓겨 좌선하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더 나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하여 몸과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다면 잠시 흐트러졌던 자세를 쉽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된다. 아무튼 화두와 한 몸이 되어 보라!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에서

"생각 떠오르면 철저히 검토 마음의 작용 깊이 탐색하자"

월슨 반 두센 美·정신과 의사

글을 쓰고 있는 내 손가락을 보자. 나는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론적으로 알지만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손가락이 연필을 잡고 종이 위를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그 움직임은 매우 빠르지만 마음속 말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마음속 말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지 지켜본다. '나'라는 존재는 바로 느낌·마음속 말·손가락 운동 등과 같은 체험의 합류인 것 같다.

합류는 경험이요 만남의 의식이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을 체험하는 의식의 합류점이다. 개인은 유전 양친 문화 언어 학교 교육 생활환경 등의 합류점에 있다. 문제는 사람이 자아동일성을 어디에서 찾느냐이다. 무엇에다가 '저것이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아동일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모든 것임과 동시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아동일성의 영역확장은 지혜의 뿌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체험에는 우리 육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흘러 들어온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했다면 다음의 몇 가지 가능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1.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오를 때면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생각이 너무 빠르면 그 속도를 늦추도록 노력하면서 그 수백 가지를 검토해 볼 일이다. 그런 일에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검토한다는 것을 검토한다. 피곤을 느끼면 5분간 한 가지 생각만을 마음 속에 잡아 두도록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떠돌아 다니는 모든 장소를 기록해 볼 일이다. 그리고는 마음의 방랑에 선행하는 고백을 알아 보도록 노력할 일이다.

2. 여러분은 내가 자아동일성의 경계(boundary)에 관한 통상적인 관념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리둥절할 것이다. 만약 자아의 경계가 개방되어 있기만 하면 마음의 작용을 보다 깊게 탐색하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다.

3. 이런 일에 익숙해지게 되면 개방된 경계처럼 장애를 제거한다.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심리학〉에서

주간불교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인 터 뷰

건강식품 3종 출시
시연스님, '원기대보탕' 등

◇대구여래한방병원장 시연스님

대구 여래한방병원 원장이며 최근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특허로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연스님이 이번에 또 다른 건강식품 3종류를 상품화시켜 시판하고 있다.

이번에 시판하는 건강식품은 '원기대보탕'과 '보혈청신탕', '한방식초'.

스님은 "'원기대보탕'은 중국 고대 신선도의 수행자들이, 원기를 도우기 위해 먹었던 것으로, 계피 갈근 구기자 대추 등 30여가지 한약재를 써서 만든다"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방식초'에 대해서 스님은 "검은 쌀밥에 농주(濃酒)를 붓고 상황버섯 검정깨 감 누룹껍질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면서 "정력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약을 복용하면 대변색이 누렇게 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혈청신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혈압으로 인한 질병이나 신경통 손발저림 등에 효과가 있지요."

스님은 이번에 개발 판매하는 3종의 건강식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건강식품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한방병원 설립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들어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신상품·신경영 화제

원기대보탕(元氣大補湯)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신선도(神仙道)의 수행자들이 원기(元氣)를 도우기 위해서 30여가지의 한약재를 써서 만든 「원기대보탕」은 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있다 . 이번에 시연스님이 비전된 명약의 처방을 얻어 약을 만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일이다.

내용량 : 60봉지(2個月分)
용 법 : 1일1봉지(아침식후30분복용)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한방식초(韓方食醋)

검은쌀(黑米)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황 버섯, 검정깨…등 40여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 누른 대변이 나오는 것이 치료효과를 확인 시켜주는 현상이다.

내용량 : 1.8ℓ (약0.6되)
음용법 : 1일2스푼(공복시 복용)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보혈청신탕(補血淸神湯)

우리나라에서 이름난성씨의 종가에서 대대로 비전된 명약인 「보혈청신탕」은 보혈강장(補血强壯)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게하여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내용량 : 4.2ℓ (약2되)
음용법 : 1일 1봉지복용(공복시복용)

▣ 가 격 : 30만원(2개월분)

※ 특이한 자연향료 냄새와 엄선된 우리농산물(약초)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 시험준비생, 참선수행자, 노약자, 건강한 사람도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 입금구좌 : 우체국 704148-0019991
卍 여래한방병원
▣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